

군산시, 신규공무원 대상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가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신규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민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과 데이터 기획부터 분석, 활용방안 등을 익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



군산시가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길 자치행정국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

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봉기자

새전북신문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011면 지역



군산시, 신규공무원 대상 '데이터 역량 강화 특강'

군산시는 지난 25일 신규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 강화 특강'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과 데이터 기획, 분석,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김민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강사가 강단에 섰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직원들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길 자치행정국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용규 기자

군산시, 최일선 업무 담당 신규자 데이터 역량강화교육

군산시, 신규자 데이터 역량 강화 특강

군산시는 25일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신규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과 데이터 기획부터 분석, 활용방안 등을 익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3월 부서장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리더십 교육과 8월 실무자들을 위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종길 자치행정국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시가 25일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신규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민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과 데이터 기획부터 분석, 활용방안 등을 익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군산시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부서장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리더십 교육과 8월 실무자들을 위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일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군산시 주최 ‘2024년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가 26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 대회는 6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과제 발표로 진행됐다. 총 13개 팀이 참여해 ▲생태환경 ▲향토사 ▲교통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한 내용을 7분씩 발표하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팽수를 지키는 아이들’ 팀은 팽나무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지존군산중’팀은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북아트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군산시 교육지원과 박홍순 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의지를 보여준 점이 매우 의미있었다”며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전주일보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 성료

군산시, ‘팽나무 역사 가치 홍보·보존 캠페인’ 등 호평

군산시는 26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24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6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총 13개 팀이 생태환경, 향토사, 교통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분씩 발표하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팽수를 지키는 아이들’ 팀은 팽나무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 캠페인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으며, ‘지존군산중’ 팀은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북아트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발표 후 전문 멘토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팀이 선정돼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 의지를 보여준 점이 매우 의미있었다”며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